선민의 실업률은 0%이다

(역대상 6:1~81)

1.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2.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3.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선민의 실업률은 0%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의 실업률은 0%이다'
'실업률'이란 경제 활동을 원하는 인구 대비 직업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직업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직업이라는 말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의 내용이 성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직업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해서 일정기간 동안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뜻하는 단어를 독일어에서는 '베루프(Beruf)'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콜링(Calling)'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세속적인 직업을 뜻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소명(召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선민에게 있어서 직업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벌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하는 활동은 우리 선민이 가져야 될 직업의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베루프나 콜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선민인 이상 직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선민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고,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은 있습니다. 물론 부르심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돈 되는 일이 없거나 미흡할 수는 있으나 직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부르심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선민은 얼굴에 땀 흘려 수고하며 노력하여 번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아담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 창3: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돈 벌이 되는 일에 종사함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의식 안에서 살고 있다면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돈을 가지고 쌀을 사는데 내가 번 돈으로 산다고 의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쌀을 산다고 의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6: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대기업의 회장님들처럼 많은 돈을 쌓아 놓고 사는 사람들만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러한 염려를 하면서 돈 벌이를 하는 것이 재물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면서 선민의 이 땅에서의 직업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딸들의 직업은 돈 되는 것이 직업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업을 달라고 하고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비교해볼 때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재물을 섬기는 것일 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본래의 직업 활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주실까요? 이 세상에서 생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주실까요?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먹이시고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게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려움과 염려, 의심이 생기고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가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은 떨쳐두고 말씀이 무엇이라 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각인된 우리의 심정으로 필요를 따라서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이룰 수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선민은 실업률 0%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선민은 절대로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계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레위인의 족보가 1~81절까지 얘기되고 있는데 앞서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를 다룰 때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 갈 때까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으로부터 이어진 대제사장의 직계후손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16~30절까지는 레위지파 전체의 대략적인 족보가 나옵니다. 31~48절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절에 성전에서 성가대로 봉사하였던 헤만과 아삽과 에단의 레위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헤만 족속이 중앙에서 노래를 부르면 아삽과 에단 족속이 좌우에서 성가대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49~53절까지는 다시 한 번 아론 자손의 계보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아론으로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의 대제사장이 언급되면서 앞서 나온 이름과는 다르게 그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번제단의 얘기가 나오고 분향단과 지성소의 이야기가 나오고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번 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위 지파가 머물렀던 성읍들이 나오는데 전국의 성읍들에 레위 자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족보의 형태를 빌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레위인의 존재 의미는 출애굽 때의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벌하실 때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스라엘의 집에서만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는데, 모든 집의 장자를 어린양의 피 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가정들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수를 계수를 할 때에 보면 남자가 군대에 나가 전쟁에 싸울 수 있는 20~50세를 계수했는데 레위인은 제외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군대에 나갈 수도 없고 땅도 분배 받지를 못합니다. 따로 기업이 없습니다. 출애굽 때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어야만 마땅한 존재들이었으나 그들을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사셨고, 각 열한 지파의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들을 셀 때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센 것이 아니라 생후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를 다 세었는데 22,000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수가 22,730명입니다. 730명에 해당되는 것은 속전으로 갖고 이 레위인들을 성전 일에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직업이 없는 자들입니다.

에스라가 이들의 족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선민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집중되고, 이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열두 지파로 확산되었다가 다시금 유다

지파로 집중됩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내에서도 다윗의 가계로 집중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식에서 기록되던 족보가 3장에서 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게로 향하게 되자 메시아의 시점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족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집중되느라 버려진 것 같이 보였던 다른 모든 선민의 가계들이 다윗의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면서 다윗의 자손의 계보로 영합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잃고 이방 땅으로 흩어진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이방민족 속에서 흩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영역 안으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모두 다 영원한 다윗의 언약 안으로 포함되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창녀나 매국노인 세리들조차도 영원한 언약인 다윗 자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신분에 있든지 십자가 복음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윗 자손의 마지막 혈통에 도달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기업도 없고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평생 성전에서 종사합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지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키고 재판을 해줍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성전의 구성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구성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제사와 상번제의 의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레위인들에 위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존재의미 위에서 율법이 지켜질 수 있고 율법의 정신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성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지금의 마음을 죽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또한 성전의 구성이고 율법의 기본정신입니다.
이렇듯 레위인들은 평생을 성전을 위해 살며 따로 돈 벌이를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선민에 대한 족보를 써가면서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열두 지파로 야곱의 열두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계로 넘어 갈 때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 흩어진 선민들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또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과 개개인과의 관계는 레위인과 성전의 관계처럼 십자가가 직업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위인에게 소명으로 주어졌던 성전봉사는 모든 개개인에게 직업이 십자가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레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직업은 레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관계하는 것이 내 직업이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레위인의 족보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대제사장의 족보를 이야기한 뒤에 또 다시 아론부터 다윗 때까지의 대제사장과 그들의 역할인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에서 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곧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지성소는 내 마음의 지성소에 궁극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들어오는 자리를 뜻합니다. 또한 그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어서 내게 죄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실제 하나님을 추구함을 뜻하는 분향단과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함을 뜻하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모든 상황에서 바른 판단이 주어짐을 뜻하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듯이 십자가를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생활화가 평생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이 전 지파들의 성읍에서 48개의 성읍을 얻어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돈벌이를 위한 일들이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 직업은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곳에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십자가를 직업으로 하여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월급도 하나님께서 생계를 꾸려나가도록 은혜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이것이 진실인데 마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생계를 위한 돈을 스스로 수고해서 번 돈으로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평생 돈벌이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직장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수행해 나가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때에, 똑같이 돈이 주어지더라도 이 돈은 완전히 은혜로 포장되게 됩니다. 마귀는 이 포장을 벗겨내고 내 땀으로 포장을 시켜놓아 노예로 살게 합니다. 좀 더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가 없고, 돈 쓸 곳이 많다는 불평만을 하게 됩니다.
선민에게는 실업이 없습니다. 때로는 돈 되는 일이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지만 직업이 없는 선민은 없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영업장이든 친구를 만나든 십자가 생활화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족보를 써가며 메시아에게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다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명으로서의 직업인 십자가 생활화에만 전념하는 모든 자들이 선민이고 레위인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을 주도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내 속죄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 스스로 해나갈 수 있으니 기가 막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유보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면 버리시거나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것인데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성전의 의미가 한꺼번에 성취된 십자가를 삶의 현장 곳곳에서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돈 되는 일에 종사하면서 돈 되는 일을 찾고 염려하는 한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십자가 생활화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허락하신 직업에 충실함으로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소원과 뜻이 성취되길 바라며 나의 생계는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복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